

르네상스 도시 피렌체에서 한국미술 향연이 펼쳐진다

이탈리아 피렌체는 르네상스 꽃을 피운 대표적인 도시다. 14세기-16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예부흥을 일컫어 르네상스라고 한다. 중세와 근대를 잇는 이 시기에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보티첼리 등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출연해 위대한 작품을 창작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활발했던 것은 지중해 무역으로 일군 부를 비롯해 봉건제 종료 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 그 가운데 피렌체는 르네상스 시기 예술은 물론 상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오늘날까지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대표 도시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르네상스를 꽃 피운 도시 피렌체에서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김중재)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갤러리 가다르테에서 펼쳐지는 '무등미술대전-르네상스를 찾아서'가 그것. 무등미술대전 4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전시는 지역 미술 발전과 신진작가 발굴을 위해 달려온 지난 40

‘무등미술대전-르네상스를 찾아서’ 21~26일 갤러리 ‘가다르테’ 김라영·박찬경 등 40여 작가 참여 서양화·수묵화·크로키 등 작품

년 세월을 돌아보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서로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한 작가들이 교류를 매개로 새로운 조형언어의 확장성을 타진한다는 뜻도 내재돼 있다.

전시에는 김라영, 고석인, 기경숙, 김순이, 김인숙, 김일해, 김종경, 김태봉, 김지영, 김혜숙, 박찬경, 박태후, 박홍수, 박효아, 배정강, 서은경, 양희영 등 40여 명 작가들이 참여하며 서양화, 수묵화, 동양화, 크로키 등 다채로운 작품을 펼친다.

고석인의 '무제'는 정돈된 구도에 추상의 이미지를 결합한 작품이다. 구상과 추상의 교묘한 경계에서 빛어지는 여운은 간단치 않다. 사람의 내



오석심 작 'flower-2204'



이유라 작 '내가 바라보는 것'

면 같기도 하고 어떤 사물의 내부를 빠르게 포착한 이미지 같은데, 바라보는 이에게 다양한 생각 거리를 던져준다.

박영진의 '항구'는 선장과 맞닿은 항구의 배면이 드러워져 있다. 초록의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주변 풍광과 어울려 동원적이면서도 신비한 아우라를 선사한다. 항구는 화려하기도 쓸쓸하기도 않으며, 그렇다고 비린내가 진동하는 삶의 현장도 아니다. 바라보는 이의 심상에 드리워진, 어쩌면 머나먼 바다에 떠있는 환상의 섬처럼 초점화된다.

조규창의 '우리들의 이야기'는 지나온 날들의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따뜻하면서도 소박한 풍경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물론 그 이야기는 밝고 아름다운 서사만 있는 것은 아닐 터다. 화폭을 가로지르는 다소 어두운 색감의 배경은 바라

보는 이에게 이야기의 씨앗이 어떻게 발현될지 상상하게 한다.

윤의 미술문화기획자는 "피렌체는 도시 곳곳에 미술과 관련한 역사뿐 아니라 작가들이 거쳐갔던 무수히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다"며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피렌체에서 우리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 등은 다르지만 교류를 통해 작가들의 아이디어 등 다양한 부분을 공유했다"며 "이 같은 모티브 등이 창작의 에너지로 승화되고 나아가 세계 각국의 문화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시대 풍류 문화’

광주박물관 19·26일 유튜브 강좌



지난 13일 방방선 교수의 온라인 강연 장면.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지난해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은 도자문화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도자문화관 건립은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광주박물관은 '도자기와 지역 의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토대로 지역 도자기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복안이다.

광주박물관이 도자기를 모티브로 한 전문가 강좌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오는 19일과 26일 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조선시대 풍류 문화'가 그것. 이번 강연은 오는 21일 개막 예정인 특별전 '도자기, 풍류를 품다'와 연계해 펼쳐진다. 강사는 조선대 이상원 교수. 이 교수는 "한국의 정자"를 주제로 정자의 역사, 누각과 정자의 차이, 정자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박물관은 지난 13일 고려대 방방선 교수가 '조선 후기 백자와 문인 취향'을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방 교수는 조선시대 도자기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그 안에 담긴 당대 사람들의 철학, 풍류를 들려줬다.

한편 이애령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아시아 도자문화를 대표하는 광주박물관이 도자기와 연계해 마련한 강좌"라며 "조선시대 풍류문화는 도자기라는 뛰어난 문화를 매개로 향유되고 전승된 우리 고유의 문화"라고 밝혔다.

강연은 광주박물관 유튜브 채널 통해 시청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예술가들 '틴들-효과' 전

작가·비평가 1:1 매칭 전시... 17~21일 산수미술관

빛의 산란으로 특정한 색이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을 일컫어 '틴들 효과'라 한다. 흔히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한 줄기 빛이 비칠 때 일어난다.

예술 분야에서도 자신만의 아우라를 발하는 이들이 있다. 틴들 효과와 같은 주제를 상징한 전시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작가와 비평가의 1:1 매칭 기획인 '틴들-효과' 전이 17일부터 21일까지 산수미술관에서 열린다. 강희성, 김미지, 권예슬, 나지수, 수우림, 유초원, 이동구, 윤성민, 최정우 등 모두 9명 작가가 13개 작품을 출품했다.

이번 전시는 조선대 시각문화큐레이터 전공학생이 '10년 이후에도 빛날 작가' 9명을 선정하고 작가와 비평가를 1대 1 매칭해 인터뷰했다. (전시장에서는 9개 비평문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맡은 박영진 큐레이터는 "틴들-효과"에 참여한 9명의 작가는 노엘 캐럴의 저서 '비평 철학'에서 언급한 '성공가치'와 '수용가치'를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성공가치'는 작가가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수용가치'는 감상자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가들은 인간관계를 비롯해 공생, 욕망, 성소수자, 편견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표현했다"며 "이에 대해 청년 비평가들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강희성 작가의 'Explorer'는 인간의 욕구를 커피, 소금 등 재료를 활용해 표현했다. 이에 대해 류시원 비평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집중해 글을 썼다.

김미지 작가의 '이면' 연작은 일기를 회화와 조

각을 결합한 부조 형태로 구현했으며 최시은 비평가는 조각을 결합하고 깎아내는 과정에 주목해 평론을 작성했다.

권예슬 작가의 '누군가의 정원' 연작은 반려 식물과의 교감을 장지와 본체를 활용했다. 김어진 비평가는 식물과 사람의 공생관계에 집중했다.

또한 나지수 작가의 '하루살이'와 박영진의 비평, 수우림 작가의 '신체 조각' 연작과 최연우의 평론, 유초원 작가의 '영커진 풀숲에서 발견한'과 이서진 비평가 글도 전시된다.

아울러 이동구 작가의 '엄살쟁이'와 나지수 비평가의 비평, 윤성민 작가의 '자유를 향한 여정'과 전세진 비평가의 평론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인 최정우 작가의 '거울 앞에서'는 사회적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는 작품을, 이에 대해 오혜성은 '우렁찬 예술적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는 요지의 글을 썼다.



이동구 작 '회색은 없다'

한편 17일 오후 5시에는 개막 행사로 'Artists & Critics' Talks'가 진행된다. 참여 작가와 비평가의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 비평, 토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28일까지 공모

전남도내 장애예술인의 복지 향상과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사업.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2024 전남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 전남에 거주지를 둔 장애예술인의 지속적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0명 내외 대상자를 선정하며 1인당 200만 원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연, 시각, 문학 분야 중 하나를 택해 지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 장애예술인(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까지 기회를 확대했으며 올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자, 신규사업신청자에 한해 서류심사단계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공고일 이전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복지카드 보유자, 만 19세 이상 장애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 예술인들은 문화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 여건에 좌절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업이 문화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예술인들의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예술인 복지플랫폼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감동 카리스마 '터치드 Live in Gwangju'

22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제31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엠넷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션에서 우승하는 등, 각종 페스티벌 및 경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4인조 혼성그룹 터치드(TOUCHED)가 광주를 찾아온다.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은 '터치드 Live in Gwangju'를 오는 22일 오후 6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예술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역점을 두는 GAC기 획공연 포커스 일환으로 마련된다.

싱글앨범 '새벽별'로 2021년 데뷔한 터치드는 'Yellow supernova', 'purple', 'Back to you'

등 다양한 앨범을 발매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려왔다. 특히 멤버 중 윤민(보컬)이 복면가왕에 출연해 장기 '가왕'에 등극하면서 인지도 급상승세를 탔다.

멤버 전원은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동문 출신으로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채로운 매력으로 대중을 만나 왔다. 현대자동차 CF를 비롯해 다양한 페스티벌에 출연하면서 특유의 카리스마, 섬세한 감성으로 존재감을 각인시켜 온 그룹이다.

데뷔 앨범 '새벽별'을 비롯해 'Hi Bully', 'Highlight'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희망적이면서 특유의



4인조 혼성그룹 '터치드'. 왼쪽부터 준비김(베이스), 윤민(보컬), 김승빈(드럼·리더), 채도현(키보드).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감성이 깃들어 있는 터치드의 노래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 관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할 것이다"며 "공연을 찾아 강렬한 카리스마와 감동이 담긴 터치드의 노래를 즐겨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전당 누리집 또는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